

100 號 를 내 면 서

「과학과 기술」誌가 9月로서 誌齡 100號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政府當局의 支援과 財團法人 產學協同財團의 後援, 그리고 各界의 呼應과 協調를 받아 100號에 이르치되니 感慨無量하며 이 機會에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달은 또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創立된지 만 11돐을 맞는 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전대 1966年 우리나라는 제 1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마무리고 제 2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短縮完遂하고자 總力을 傾注하던 때였습니다.

科學技術의 落後性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克服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에 모든 科學技術人은 大同團結하여 科學技術 中興을 圖謀하고자 5月 19日 “發明의 날”을 期해 第1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열었고 當時 總意로서 大會의 決議文과 建議文을 採擇한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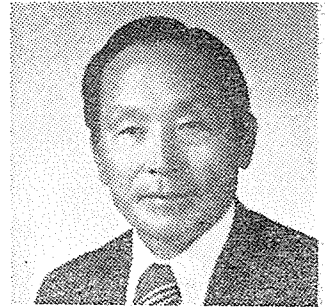
이어 科學技術者들은 協會, 學會, 團體等의 決議에 따른 有機的 結合을 위해 1966年 9月 24日 드디어 歷史的인 科總을 創立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政府는 이 建議를 受理, 科學技術界의 氣流과 더불어 科學技術을 振興함이 經濟開發의 捷徑을 가는것이기에 이를 專擔할 行政機構로서 科學技術處를 1967年 4月 21日에 設置하였습니다. 이는 大統領閣下와 政府各層 그리고 全國民이 科學技術振興에 總力을 傾注하게된 歷史的인 轉換點이었다고 生覺하는 바입니다.

이듬해 本聯合會는 科學技術 振興 弘報에 一助를 하고자 「과학과 기술」誌를 創刊했으며 이 「과학과 기술」誌는 科學技術者 共同의 對話의 廣場을 마련하고 最新 科學技術情報과 各部門의 새 知識과 論調를 敏捷하게 交流토록 하므로써 相互協調와 紐帶를 이루는데 未洽하나마 一助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 紀念特輯 100號에는 科學技術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專門家들의 回顧와 앞으로의 對策展望들을 다듬어 貴重한 學術研究進路의 資料가 되고 政策研究에 指針이 되리라 믿습니다. 讀者 여러분께서는 이 對話의 廣場에 積極參與해 주시고 밀어주시며 아껴주시기를 當부합니다.

誌齡 100號를 祝賀 協調해 주신 政府當局과 產學協同財團, 學會, 團體, 研究機關 諸位께 다시한번 感謝드리며 倍前의 指導鞭撻을 期待합니다.



會長 金 允 基